

## 나는 주님 앞에 'teachable'한 제자인가?

어떤 설교자가 미국 대학원에서 좋은 학생과 제자의 기준으로 'teachable'한 학생인가가 중요하더라며, '겸손'의 의미를 소개했다. 당대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던 아볼로가 천막지기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초청에 응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 이게 바로 'teachable'이고 '겸손'이란단다.

먼저 'teachable'이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았다. 본래 'teachable'이란 “잘 배우나?”, “가르침을 잘 흡수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말 잘 듣는 학생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면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전통을 벗어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과 주장들이 등장할 때, 이들이 낯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의견이 바른 진리라 여겨질 때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겸손이란 남을 높이어 귀하게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넘어 기존의 경험이나 생각과 다름에도 참지식이라 여기는 것을 인정함이 겸손이고, 이를 삶으로 써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우리를 높이신다”(벧전 5:6)고 증거하며, 겸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들고 있다.(신 8:2; 대하 7:14)

고난주간이면 마주하는 복음서, 수십 번은 읽었을 것인데 올해는 두 사람,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이 고난주간 내내 떠나지 않았다. 먼저 예수님은 고난받을 줄 아시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닿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부르심에 가짜 겸손으로 살아온 '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았다. '앞'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이어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이로움에 타협하고 마음을 빼앗긴 게 어디 한두 번일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이제부터라도 깨어 있어야지 다짐해본다.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며 손을 씻던 빌라도인데, 은퇴한 장로요 운영위원장도 아니니 “나는 관계가 없는 거야”하는 내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딤후 4:7)는 바울의 고백이 부럽다.

성경이 풀어내는 진리 앞에, 참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teachable'한 제자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자라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한다.